



해외에서 더욱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주)바이오노트

(주)바이오노트는 2003년 3월 동물질병 진단 시약 생산을 목적으로 애니젠이라는 사명으로 출발하여 현재 1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창업 당시 5명 직원의 조그만 회사였지만 현재 연 매출 규모 330억원, 임직원 수 103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의 성장가도를 달리며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다. 2009년에는 엄격한 USDA 실사를 통과하여 국내 동물용의약품 기업 최초로 미국에 정식 제품을 수출하여 품질을 인정 받았으며, 2016년에는 세계최초로 MERS 간이진단키트를 개발하고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인증을 획득하여 다시 한번 (주)바이오노트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질병진단키트 전문생산업체

현재 (주)바이오노트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군은 모두 100여 종에 달한다. 래피드간이진단키트, ELISA 키트, 백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형광면역분석기기인Vcheck 장비를 출시하여 동물용분석기기 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래피드 간이진단키트는 동물 감염질환의 빠른 진단을 위한 제품으로 Immunoassay 원리를 이용해 10분 이내 항원이나 항체를 검출하여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

질환인 파보바이러스, 디스토퍼, 심장사상충 감염 외에도 산업동물에서 주요 발생하는 설사병, AI 등에 있어 국가방역의 표준진단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ELISA 제품은 주로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소의 결핵, 브루셀라증, 돼지열병과 같은 국가 주요 방역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 기술로 개발, 분리한 개 인플루엔자(H3N2)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있다. 2017년 출시한 형광면역분석기기인 Vcheck의 경우 형광물질을 사용한 높은 민감도와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결과 값을 도출한다는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 진단 장비이다. 최근에는 한 장비로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선호하는 추세로 (주)바이오노트에서도 감염질환 외에 염증, 췌장염, 내분비질환 등 다양한 항목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정확도가 높은 우수한 제품 개발로 세계 시장 공략

(주)바이오노트 제품은 매출의 약 65% 이상이 해외 9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수출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 당시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해외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한 덕분이다. 해외 유수의 학술지와 박람회에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해외 영업활동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FAO (식량농업기구)에서 가축질병

(주)바이오노트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제조해
전체 생산물량 65%를 해외로 수출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질병진단키트 전문 생산업체



방역을 위해 ㈜바이오노트 제품을 활용하면서 전 세계에 제품 우수성도 입증 받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국내 축산 관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시장에 정식으로 제품 허가를 취득하여 수출을 하고 있으며, 제품 등록 자격을 위한 정기적인 실사도 통과하였다. 이처럼 ㈜바이오노트는 정확도가 높은 우수한 제품 개발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매출의 20%는 연구개발에 투자

㈜바이오노트의 제품은 순수 국내 기술로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의 자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연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 개발투자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전체 직원의 20% 이상의 연구 인력으로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능한 연구 인력을 토대로 자체 연구는 물론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대학 등의 국내 연구기관,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시장조사와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출시 후 바로 적용할 수 있거나 차후 검사 중요성이 대두될 제품을 미리 선정하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제품 개발 시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활용, 높은 정확성의 제품을 빠르게 개발함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

㈜바이오노트는 직원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한다. 우선 초임부터 동업계 최고 대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고 있다. 또한 자녀 입학금 지원, 우수사원 선정 등 지속적인 각종 포상을 수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으며 개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



도 인센티브, 휴가 시 여행비 보조, 경조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내 각종 복지 혜택 진행 및 기획 시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동물진단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

주력 제품인 래피드 간이진단키트가 경쟁사 출현, 기술 발전 등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017년 새로 출시한 형광면역분석기기 Vcheck의 지속적인 개발로 감염질환을 넘어 만성신부전, 심부전, 응급질환 등 수의진료 전반에 사용되는 항목들을 출시하고 동물용의로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노트에서는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PCR 확진 장비 출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동물진단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바이오노트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미니 인터뷰

김선애 대표님



Profile

김선애 대표이사는 ㈜바이로메드 연구원, ㈜에스디 연구소장을 거쳐 미국 Baylor College of Medicine, The Methodist Hospital Research Institute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바이오노트 QMR & RA 본부장, (주)SD바이오센서 QMR & RA 본부장을 거쳐 2017년 10월 (주)바이오노트 CEO로 선임되었다.

Q 동물용 의로기기 업체와 연을 맺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국내 인체용 의로기기 제조업체의 창업 이후 초창기 시절에 신제품 연구개발에 매진하며 체외진단분야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체의로기기 회사에서 분사된 동물용 의로기기 제조업체인 ㈜바이오노트로 파견되어 품질관리,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점진적으로 생산제조, 품질경영 프로세스와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맡은 지 8개월이 되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Q 대표님께서서는 직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A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직원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업무 하나하나가 회사가 향하고자 하는 최종목표의 어느 일부를 구성하여 전체를 완성하는 지 알게 하는 것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전체적인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메일, 업무회의를 통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Q 진단키트 산업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동물 진단키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랩검사와 현장진단검사(POC) 합쳐서 2017년 약 2.3조에서 2022년 3.3조의 시장이 전망되며, 연간성장률 10%를 예측할 정도로 성장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수 증가 및 진료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다는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건강정보 및 진단중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결과를 단시간 내에 수치화되어 볼 수 있고 data connectivity가 가능한 원내장비와 연결된 현장진단검사(POC)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수명이 연장되면서 감염성 질병보다는 고령검사인 성인병 및 만성소모성 질환검사, 염증검사 등이 수시로 체크하여 예후 판정 및 모니터링 관리로 활용되는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동물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축산물 소비량 증가, 생산성 향상, 레저와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말, 낙타 등의 증가로 체외진단 키트의 시장성과 니즈는 꾸준히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대표님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내후년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와의 합작 또는 M&A를 활용하여 수의 진단업계 분야의 내실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정부 및 협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조업체로서 수출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는 제도 및 고시 개선과 수출이 어려운 국가의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업체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제도의 규제사항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